

다니엘서 - 제134편

예언의 전개: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에서 임박한 일요일법까지

Jeff Pippenger

2024-03-13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14만 4천을 인치는 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이상이 성취되는 예언적 기간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때가 가까이 왔고, 모든 묵시의 성취가 가까이 왔다. 에스겔 12:23.

그 선에서 셋째 천사가 다시 도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은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착부터 1863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로 대표된다. 1863년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데스 반역에 의해 대표되었으며, 그러므로 홍해 도하부터 첫 번째 가데스 반역에 이르는 모든 역사로 대표된다. 첫 번째 가데스 반역은 두 번째 가데스 반역을 예표했으며, 따라서 아론의 죽음부터 두 번째 가데스 반역에 이르는 선이 인침의 선에서 반복된다.

그것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파 역사에서 되풀이되었는데, 그 시기는 그리스도의 침례부터 십자가까지로 예표되었고, 또한 십자가부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까지의 역사를 나타냈다. 줄 위에 줄을 더하듯이, 고대의 각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이 기간에 대해 더 많이 말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각기 자기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이 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당한 것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바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12...."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들을 축적하여 함께 묶어 두었다. 구약 성경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사역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서 반복되어 왔고, 또 반복되고 있다." Selected Messages, book 3, 338, 339.

"마지막 세대"는 베드로가 택한 세대로, 즉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은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선택되어 그때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이 "마지막 날들"의 "교회"의 "마지막 세대" 안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인침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며 끝을 맺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5.

봉인이 풀린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부분"은 시날의 두 큰 강, 율래와
히데겔 가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들이다. 그 환상들은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1장 40절부터 45절을 가리킨다. 14만 4천의 인침의 때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세대의 택한 자들을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관계 속에 영원히
인치시는 역사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지금 함께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끌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관계를 식별하는데, 이는 40절의 역사 동안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통치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위의 공화주의의 뿔의 역사로 나타난다.
또한 40절은 같은 역사 속에서 1798년부터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의 뿔의 역사를 규정짓는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분리를 밝힌다.

모든 "성경의 책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끝을 맺으며", 그것들이 만날 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보완"하고, "보완"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의 인침은 때에,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의
예언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제시된 역사선 위에서, 1절부터 3절의 음성으로 시작하여
4절의 두 번째 음성으로 끝나는, 줄 위에 줄을 더하듯 함께 모아질 때, 완전하게
된다.

다니엘서에서 히데겔 강으로 상징되는 예언적 비전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원수들이 가진 외적 비전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다니엘서에서 올라이 강으로 상징되는 예언적 비전의 완전함은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세대에게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그분의 백성 안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내적 비전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 뿔에 초점을 맞춘 봉인의 역사는, 2001년에 땅의 짐승이
애국자법을 말한 것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표현된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대표되는 말하기로 끝난다.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은 1776년에 독립선언이 선포된 말하기로 시작된 한 흐름의 끝을
나타낸다. 그 예언적 역사 기간의 중간에, 땅의 짐승은 1789년에 헌법의 발효를 말하였다.

1776의 '말함'은 애국법의 '말함'과 일치하며, 외국인 및 선동법은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대표한다. 그 역사 한가운데에는 1789와 일치하는 또 다른 '말함'이 있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첫 번째 음성은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임한 것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4절의 두 번째 음성은 또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그 두 음성은 모두 신적 음성이다. 이는 그 둘이 모두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그 천사의 음성이며, 화잇 자매는 그를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로 지목한다. 예수님은 첫째 천사이셨고, 그분은 항상 어떤 것의 끝을 시작으로써
보여 주시므로, 그분은 또한 그분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인 셋째
천사이시기도 하다.

첫째 천사는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840년 8월 11일에 강림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이로써 2001년 9월 11일에 그 천사가 강림하는 것을 예표한다. 화잇 자매는 10장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직접 밝힌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첫째와 둘째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 역사는 땅의 짐승이 세 번 말했던 1776년, 1789년, 1798년에 의해 예표된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 사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실 때의 것이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보더라. 요한계시록 11:11, 12.

2023년 7월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무신론적 용에게 거리에서 살해당했던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 미국 헌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예언적 주제가 되었는데, 1798로 상징되는 다음 음성에서 헌법이 완전히 전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1776, 1789, 1798의 세 이정표 각각은 2001년 9월 11일, 2023년 7월, 그리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표시된 세 신적 음성과 상응한다.

그 세 단계는 2001년 9월 11일, 2023년 10월 7일, 그리고 '큰 지진'의 때에 일곱째 나팔, 곧 셋째 화가 갑자기 임하게 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으로 표상되는 셋째 화의 세 단계와 일치한다. 2023년에 땅의 짐승의 두 뿔 모두의 전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의 비밀스러운 형상에 관한 꿈으로 표상되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비밀이었고, 그분은 그것을 다니엘서 1장에서 표상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드러내셨다.

다니엘서 1장에서 첫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바벨론의 식단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대표하는 사람들로, 다른 아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먹는 자들이다. 그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의 만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를 선택한 자들이며, 다른 부류는 그것을 거부하고 6장 66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는데, '갈릴리'는 '경첩' 또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거기에서 그분은 제자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만나에 대한 기별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먹었던 것과 같이,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이 먹었고, 예레미야서 15장에서 예레미야가 먹었던 것과 같았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을 먹을 때 표상된 역사는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를 표상하였으나, 그것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보다도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 기간을 더 직접적으로 표상하였다. 이는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과 함께 요한이 받은 지시들을 보면 그 장에서 분명해진다.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계시록 10:9.

그 구절에서 요한은 작은 책을 받아 먹기 전에, 자신이 먹게 될 그 기별이 어떤 경험을 낳을지 미리 들었다. 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적 역사 노선을 요한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하기에 앞서, 그 달고도 쓴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십사만 사천은

미리 들었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요한이 첫째 천사의 운동의 역사이든 셋째 천사의 역사이든 그것을 설명할 때, 그 기별은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놓고, 결국 쓰라린 실망으로 끝난다. 예레미야가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과 어울리기를 거부했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17.

에스겔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는 말을 듣지 않을 이스라엘 족속의 반역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되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온 집이 뻘뻘하고 마음이 완악함이라. 에스겔 3:1,7.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떡, 곧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갈릴리에 있는 그의 고향 교회에 제시하셨을 때, 돌아선 그 부류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고, 이것이 6장 66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천사의 강림으로 시작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에서 먹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을 드러낸다. 두 번째 시험은 두 부류가 드러나는 단계로, 그것이 에스겔과 완악한 이스라엘 집과의 대조에서든, 재림운동의 시작과 끝 모두에서 보이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대비에서든, 예레미야와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과의 대비에서든, 또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대조되는 경우에서든 드러난다.

요한복음 6장의 흐름에서 갈릴리에 도착하는 지점은 2001년 9월 11일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메시지는 결국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역사이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기를 선택한 자들은 자신들이 먹은 것의 형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고, 반면에 돌아서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은 다른 부류는 짐승의 형상을 드러냈다. 한 부류는 창조주의 형상이었고, 다른 부류는 피조물의 형상이었다. 요한복음 6장은 2001년 9월 11일에 "갈릴리"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데, 그 뜻이 "경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환점을 표시한다. 그들은 하늘의 식단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식단으로 돌아설 것인가? 예언적 전환점들에서 그리스도는 다음 기간을 위한 빛을 나타내시는데, 이는 2001년에 그분이 강림하심으로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진 것으로 대표된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하시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에 주의를 환기한다. 복음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처음 선포된 이래 줄곧 그래 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공세적 사역이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놀라운 운동을 벌일 마지막 투쟁에 이르기까지 밝혀 주셨다." Bible Echo, 1895년 8월 26일.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 역사의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일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전환점'(갈릴리)이라 불리는 '위기'들이 있고, 그 '전환점'에서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14만 4천 명의 인침 기간을 위한 빛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위기에서 주어졌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그 빛은 예배자를 두 부류로 나눈다. 전환점 뒤에 따르는 빛은 예배자를 두 부류로 만드는 메시지를 가리킨다.

다니엘서 2장은 두 번째 시험, 곧 1장의 음식에 관한 시험에 이어지는 시험을 보여 준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유다는 막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했고, 그는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이 되었다. 그것은 열국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모두에서 전환점이었고, 큰 위기였으며, 그때 음식에 관한 시험의 빛이 주어졌다. 다니엘과 세 명의 신실한 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이어 2장에서 그들은 다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대표했다. 두 번째 시험은 아무도, 심지어 느부갓네살조차도 알지 못했던 비밀에 관한 시험이었다.

그 시험의 상징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형상이었다.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던 형상을 둘러싼 생명과 죽음이 걸린 시험이었다. 그 형상은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왕국들을 가리켰고,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의 동일한 왕국들이 짐승들로 표현된다. 느부갓네살의 시험은 '짐승들의 형상'에 대한 시험이었으며,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기간에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다니엘과 세 신실한 자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시험이다. 그것은 그들이 인침 받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이므로, 인침을 위한 시험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한 부류를 낳거나, 짐승의 표를 받아 그 결과 짐승의 형상을 반사하는 한 부류를 낳는다. 다니엘서 2장에서 짐승의 우상에 관한 기별은 그것이 생사 문제로 대두되는 역사가 이르기까지 봉함되어 있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밀려주의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이해되었지만, 인침의 역사 속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연결된 한 비밀한 진리가 봉함이 풀리는데, 그것은 전환점이 도래했을 때 먹어야 했던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드러난다.

그 양식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시작된 늦은 비의 메시지이며, 늦은 비의 메시지는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이다. 그 진리를 먹지 않으면 짐승의 우상의 형성에 관한 비밀 메시지는 볼 수 없다.

엘렌 화잇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심을 받았다. 다니엘 2장에서 제시된 짐승의 우상 형성에 관한 그 메시지는, 빛이 주어지는 '전환점'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만 보이게 될 우상의 형성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성경 예언의 처음 네 왕국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여덟 왕국 모두를 지목한 것이며, 그 이해는 짐승의 우상의 새로운 형성을 낳는다.

그 진리는 여덟째 짐승이 일곱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며, 또한 처음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이후 온 세상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게 강요하는 미국이 자신이 형상을 만드는

그 짐승의 예언적 특성을 지니게 될 것임을 밝힌다. 그 형상에는 그것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음성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2001년 9월 11일이라는 전환점과, 2023년에 두 증인의 죽은 마른 뼈들을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하라고 부르는 음성과,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의 음성을 표시하고 있다.

2023년의 목소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의 비밀과 그것이 언제 말하는지를 밝혀 주는 목소리다.

2001년 9월 11일은 그때 시작되어 2020년 7월 18일에 끝나는 기간을 나타낸다. 11장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음성의 기간은 2020년 7월 18일부터 임박한 주일법에서의 세 번째 음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2020년 7월 18일에 시작하는 두 번째 기간은 2020년 11월 3일의 이정표와, 두 증인을 죽였던 자들이 기뻐하며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2021년 1월 6일의 이정표를 포함하며,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일곱째 나팔의 경고를 알리기 시작한 2023년 7월도 포함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북쪽에서 오는 듯한 회오리바람을 보았는데,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호박빛 같은 것이 있었다.' 서로 교차하며 맞물린 여러 바퀴들이 네 생물에 의해 움직였다. 이 모든 것 위 아주 높이에는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모습의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룹들 가운데 그들의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상이 나타났다.' 에스겔 1:4, 26; 10:8. 바퀴들의 배열은 너무 복잡하여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으나,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그 손에 의해 지탱되고 인도되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위, 사파이어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셨으며; 보좌 주위에는 신적 자비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이 바퀴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이끌었듯이,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도 신적 통제 아래 있다. 열국의 다툼과 소란 가운데서도,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이는 여전히 땅의 일을 주관하신다.

차례차례 그들에게 할당된 때와 자리를 차지해 온 여러 나라의 역사는,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한 자리를 정하여 주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오류가 없으신 분의 손에 들린 다림줄로 측량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과거의 영원에서 미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의 고리들을 하나하나 이어 주시며 그분의 말씀 속에 정해 두신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시대의 행렬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오늘날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미리 말한 모든 것은 역사의 기록 속에 선명히 드러나 왔으며, 앞으로 올 모든 것 또한 그 순서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교육, 177, 178.